



상아청진기

글 □신좌섭(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실 겸직교수)

사진은 벨과 이어피스(earpiece)를 상아로, 튜브를 고무로 만든 청진기로 1920~30년대에 널리 사용되던 것이다. 청진기는 1816년 브리타뉴의 의사 레넥(R. T. H. Laennec, 1781~1826)이 발명했는데, 당시까지 의사는 환자의 가슴에 귀를 댄 채 손으로 가슴을 두들겨 나는 소리를 듣고 폐 등 가슴속의 상태를 짐작하였다. 그러나 레넥은 타진음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가슴속 상태를 진단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가슴에 직접 귀를 대기가 어색하다는 데에 착안하여 원통의 한쪽 끝을 귀에, 반대쪽 끝을 환자의 가슴에 대고 심장이나 폐의 소리를 듣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레넥은 이것을 처음에는 '원통(cylinder)'이라고 불렀고 청진기(stethoscope, 그리스어로 '가슴속을 들여다보다'는 뜻)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최초의 청진기는 길이 30센티미터에 직경 3센티미터 정도의 편이형(片耳型, 한쪽 귀로 듣는)으로 몸통은 히말라야 삼목(杉木)을 깎아 만들어 문자 그대로 '원통'이었다. 이것이 점차 정교해져서 벨과 이어피스를 상아로 만들어 삼나무 원통에 끼운 것이 등장하였다. 이후 몸통의 재료로는 금속, 백납(납땀용 납) 등도 사용되었다.

1850년 뉴욕의 카니만(G. P. Caniman)은 편이형을 양이형(兩耳型, 양쪽 귀로 듣는)으로 개량하고 몸통을 쉽게 구부러지는 유연한 재료로 대체한 새로운 청진기를 발명하였다. 카니만의 청진기는 이어피스는 상아로, 벨은 흑탄으로 만들었으며 튜브의 상부(이어피스 쪽)는 금속, 하부는 명주실(絹絲)을 치밀하게 엮은 두툼한 천으로 만들었다.

상아는 20세기 초반까지 벨과 이어피스의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튜브의 재료로 처음에는 명주실이 사용되다가 구타페르카(guttapercha, 열대나무의 수액을 말린 고무 비슷한 재료)로 대체되었으며, 20세기 들어서면서 고무가 사용되었다. †